

# 좌천·남창·덕하역 등 동해남부선 3개 신축역사 개통

지역 특성 반영한 명품 역사로 건립...철도 이용자 편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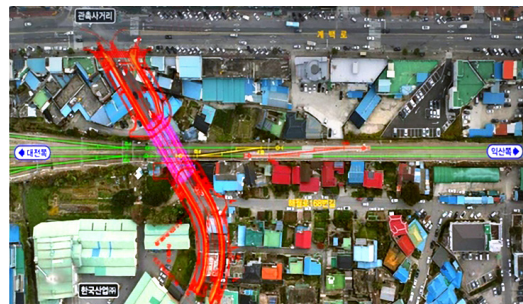
덕하역사



남창역사



좌천역사



관측건널목 입체화 위치도

동해남부선 철도 2단계 구간(일광~태화강) 중 좌천·남창·덕하역 신축역사가 준공돼 문을 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8월 28일 좌천역(부산), 31일 남창역(울산), 9월 2일 덕하역(울산) 새 역사를 순차적으로 개통했다고 밝혔다.

신축역사 개통으로 기존 간이역사를 이용하던 철도이용객은 임시 여객통로와 선로 횡단 건널목을 사용하지 않고 새 역사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개 역사는 주변 자연환경과 지역성을 모티브로 했다. 특히 좌천역사는 부산 달음산과 비상하는 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 수유 공간 등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현대식 역사 개통으로 동해남부선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2단계 구간 5개 신설역사도 제때 준공하도록 공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 호남선 철도 논산 관측건널목 입체화 공사 착수...2023년 완공 철도공단, 130m 길이 왕복 2차로 지하차도 신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8월 12일 충남 논산시 취암동 일대 호남선 철도 관측건널목 입체화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1944년 호남선 건설 당시 설치된 관측건널목은 노후화한 데다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출·퇴근 시간대 상습 차량정체가 빚어지는 구간이었다.

공단은 130m 길이의 왕복 2차로 지하차도를 2023년 5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공사가 끝나면 지역주민 교통편의와 논산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영석 철도공단 충청본부장은 “공사 기간 안전관리에 힘을 쏟고 사업도 제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